

“建築이 個人的 個性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出生地/서울종로구 원서동 □ 學歷/동경조도전대학 高工 건축과 □ 主要經歷/홍익대건축과 교수/중앙대 건축미술과 교수/国展초대작가/国展運營委員/서울市住宅政策 咨文위원 □ 主要作品/서울대농대기숙사·대식당/한전별관/구·예총회관/중앙대기숙사등 □ 著書/디자인·센스/한국의 아파트평면 집/한국현대미술사(건축편)/조형의장론등.

☒ 對談/洪 淳 寅 (본지 편찬위원)

□ 남을것도 모자랄것도 없네—.

마포 旧신민당사가 내려다보이는 고층아파트에 姜明求교수는 살고 있었다. 곱게 손질된 시원한 삼베한복을 차려입고….

열린 창으론 立秋를 지난 시원한 바람이 커튼을 들추며 스며 들고 마주한 탁상머리에는 조금은 피곤한 기색 태극선이 두 어게 놓여있다.

정년을 얼마안남긴 姜교수—. 그 「정년」이라는 다소 색바랜 어감에 걸맞지 않게 그는 이루어놓은이의 평화스러움 같은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손짓, 그 눈빛, 그 표정 더구나 그 목소리가….

작은 木器, 놓여있는 돌, 화분 서너개 그리고 姜교수 내외분 그것이 그리크지않은 공간을 늘 차지하고 있는 남을것도 모자랄것도없는 그런 것이려니—.

□ 自己作品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위험.

□ 洪 교수님께서서는 建築이 国展의 한 예술분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히 힘을 쓰신분 가운데 한분이시고 現在도 運營委員으로 계시고 한마디로 国展發展의 山 証人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建築分野가 国展에 첫선을 보였을 때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또 건축가의 활동과의 관계등을 말씀해 주시죠.

□ 姜 사실 그 당시에는 建築部門이 国展에 들어가는 것 부터가 문제가 많았어요. 他分野에서 도대체 建築이 무슨 藝術이냐고 反問이 많았죠. 또 제작비는 다른 분야의 作品보다 백여배나 더 들지만 受賞을 한다고 해도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혼자만하는 作品도 아니기 때문에 펍 힘들었죠. 그러니까 학생作品이 많았으나 規約으로 學生作品은 특선을 주지않기로 했죠. 기성作家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그래서 처음 당시에는 国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作品과 그리고 學生들 作品이 대종을 이루었죠. 과도기적인 편법이었습니다. 또 많은 기성작가들을 유치하기위해 널만한 분들을 作品을 出品하든 안하든 추천作家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出品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해서 지금과 같은 위치에까지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 洪 네, 상당한 發展을 했고, 특히 부문별로 大賞制度를 뒤서 受賞者에게 海外에 나갈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당국의 배려가 펍 컸던거요.

□ 姜 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 洪 다음에… 그동안 서울市 建築審議委員會 일을 하고계시지만, 처음에는 美觀심이라고 했죠?

□ 姜 그렇습니다.

□ 洪 그래서 오랜동안 서울市 建築部門에 깊이 관여해 오시면서 느끼신점, 또 改善方向 그리고 建築士에게

바라고 싶은점등을...

□ 姜 우선 建築士들에게 바라는 바는 말씀드리기가 힘이 드는데, 各自에게 개성이 있고 해서 個性을 꺾어서 까지 어떻게 해라하고 말하기 어렵고... 다만 한 建築物이 주위환경이나 도시 全体에 영향을 줄 수 있다하는 自負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자기 作品만을 고집하고 그 주변환경도 無視하고 都市全体도 무시하고 나가서는 韓國建築全体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思考方式은 앞으로는 지향돼야겠지요. 공공성있는, 대중성있는, 즉 全体性이 있는 것이어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의를 한 10여년 해보니까 이런게있어요. 심의하는 분들이 建築家的인 양식에서 주관적으로, 나는 삼각형이 싫다, 나는 아취형이 싫다하는 式的 主觀的인 견해는 피해야겠어요. 어디까지나 客觀性있는 견해가 필요합니다.

□ 審議는 실제 作品活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 姜 때문에 건축실의를 좀더 제대로 하려면 우선은 作家的인 作品을 남겨본 교수들과 또는 될수 있으면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계신분들이 하셔야 건축사들이 作品을 하는 과정이나 그밖에 사항을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런것을 한번도 안해보고 다만 學校에서 교편만 잡던 분들이 심의를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 洪 결과적으로 건축사들이 올바른 도시환경이나 건축적인 눈을가졌을때,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은 직접 現業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사정을 알고있을때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는 合一点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 姜 그렇죠. 그리고도 客觀性을 띄어야 하겠습니까. 그점이 중요합니다.

□ 洪 다음은 住居환경에 관한 얘기인데, 교수님께서 특히 아파트에 관한 많은 연구도 하셨잖아요. 그동안 아파트에 관한 일반의 인식이 지난 60年代에 비해 많이 아져 고밀도 주거환경인 아파트생활을 아무 불편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동주거환경으로서의 아파트에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 姜 사실 아파트가 成長한것은 地價하고 관계가 있는데, 地價는 자꾸 오르니까 그것을 공동부담으로해서 함께 쓸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해본것이 아파트가 生成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것은 入住者에 관한 문제인데 共同生活에 대한 기본 教養이 안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교육이 필요합니다. 환

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같은것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이 공공환경에 대한 認識이 높아질것 같으면 건축가가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도 그대로 안쫓아갈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 現實化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地價가 지역마다 다른데, 또 입지조건 환경이 다른데 아파트값은 같아야 한다고 못을 박으니까 업자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불량진물을 지을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에 걸맞는 아파트를 짓게하기 위해서는 값의 現實化는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또 그래야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여러가지로 改善이 될줄 압니다.

□ 洪 그동안 50年代부터 弘益大에서 建築미술분야를 후진들에게 가르치셨고 그후에 73년부터는 中央大에 오셔서도 계속專念하고 계신데, 교수님은 특히 建築의 芸術的 本質에 관한 문제를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강조 하시면서 결부시켜 지도해주시고 계신데, 차제에 요즘 工業化일변도에 영향을 받아 기계화 내지 量産化되고 있는 實情으로 건축의 本質 혹은 인식도 부족하고 철학의 빈곤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기회에 건축미술 또는 건축교육적인 指導理念같은것을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現實하고 비교해서...

□ 건축은 工学쪽보다 芸術쪽이 훨씬 가깝다.

□ 姜 그동안 교육계에 한 20여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느낀점인데요. 우리나라 건축교육이 조금 절름발이인것 같아요. 지금까지 건축이 工科大学에 속해있는데, 건축은 創作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建築哲學이 내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의 집을짓고 또 지은것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점은 교육시키지않고 工学쪽만 중점을 두거든요. 생각해보면 창작부분이 70%라면 기타 工學的인 엔지니어링부분은 많이 생각해서 30% 정도라고 하겠는데, 30%를 위해서 70%를 희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생긴다고 여깁니다.

外國도 그런점은 있는것 같아요. 어떤나라에서는 建築科가 工科大学에 있는가하면 어떤나라는 美術大學에 속해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라는 建築大學이 따로 있잖아요. 가장 바람직한것은 건축대학이 제생각에는 올바른 제도인것 같습니다.

國展에 建築이 들어가게된데에는 조각가 한분이 큰 힘을 써 주셨는데 조각하고 건축하고는 비슷한점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힘이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축이 工学·科學이 아니다 창작이다 하는것 까지는 어느정도 인식하면서 선배분들이 아직도 工学쪽으로부터 생각하는경향으로해서... 그 책임도 있는것 같아요.

□ 洪 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인정을하면서도 그대로 있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 姜 그래서 지금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國展에 많이 出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분들이 길을 올바르게잡을 수 있는 힘이 될줄입니다.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신 建築士들이 비록 工科大学은 나왔지만 作品을 하다보면 이런점을 쉽게 알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님들과 現業에 계신 건축사들이 힘을 모으면 건축교육의 잘못을 쉽게 바로잡을수 있을 것으로 알고 希望을 걸고 있습니다.

□ 伝統은 우리풍토에 맞고 現實에 충실한 최선의 作品을 남기는것 自体가…

□ 洪 國際建築의 潮流속에서 우리建築의 現實이 과연 우리것인지 또는 모방에 불과한것인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소위 제 3세대 건축이라고도하고… 이런상황속에서 우리들의 건축, 또는 기와집짓는 傳統건축이 아니라고해도 우리건축의 향방을 짚은 사람들로써 어떻게 느껴야 하고, 우리의 좌표가 어떤것이며,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울러 후배들에게 어떤 터전을 마련해 줄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 좀…

□ 姜 건축은 국제적인거죠. 또 거리와 時間이 단축되니까 自然히 국제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한정해서 봐도 예전과는 달리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축도 구라파건축이니 미국건축이니 혹은 東西洋의 건축이 아니라 國際的인 건축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생각되는것이 전통문제인데, 늘 이것과 대비되는 거죠.

저는 전통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위정자들이 전통건축을 살려야 된다해서 기와집도 짓고 국립박물관 같은것도 했지만 오히려 5백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평가한다면 5백년전 사람보다 1천년전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 평가할겁니다. 전통이란 어떤것을 끌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한것, 자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또는 두뇌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놓은것이 후세에까지 공감을 얻는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하는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것으로 우리의 풍토에 맞는 作品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놓는것이중요합니다. 그것이 傳統을 남겨놓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 洪 교수님의 傳統에 관한 見解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歷史意識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군요. 혹은 전통건축이라고 하면 기와집을 그대로 옮겨놓고 그것을 확대 혹은 과대하게 키워 놓는것으로 생각하잖아요.

□ 姜 한 예로다가 世宗文化會館지을때인데 시장이 설계를 가지고 자문을 해달고해서 한번 갔는데 지붕에 기와를 입히겠다고 겁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기와를 입히는 것이 傳統인줄로 아는모양인데 그것은 반대하라고 했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기와집이 없었고 중국에도 없었죠. 후세에게 욕을 먹는다고 했더니 理解를 한 일이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잘못생각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 그들에게 아부하는 건축가들이 더욱 문제죠. 비논이 없는거죠.

□ 洪 초기에 학교에 오시기전에 설계사무소를 하셨을때의 상황하고 요즘의 상황하고를 비교해서 말씀 하신다면…

□ 「토탈·디자인」으로서의 건축예술이 가장 바람직해.

□ 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보스톤에 있는 TAC를 늘 생각하고있는데 제가 53년에 갔을 때는 열명정도밖에 없었어요. 열명이 공동작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250명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난것은 그만큼 건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나는 건축이 개인의 개성에 의해 지어져서는 안될것으로 현재로는 생각하는데 건축은 여러사람의 습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토탈·디자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作品的으로 좋은것을 짓는데 그것은 좋은 작품이었다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어떻게 습력이된거고 또 여러예술가들의 습력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하는 면에서는 별개의 것인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설계사무소는 화가도 한분있었으면 좋겠고 조경, 조각, 심지어는 기업경영계획 같은것도 알수 있도록 대형화가 불가피할 줄입니다. 시대적인 조류가 아니겠습니까?

□ 洪 그러니까 오키스트라의 콘덕터같이 모든것을 지휘해 나가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 姜 모든전문가들과 合作合力하는것이 必要하지 않겠는가 하는…

□ 洪 한사람의 영웅주의, 창작의욕이 왕성한 사람이 이것도하고 저것도하는 시대는 아니라하는 말씀이시군요.

□ 姜 TAC도 그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겁니다.

□ 洪 아직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혼자 이끌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일뿐이지 요즘엔 규모면에서 혼자으로 해낼수 없잖아요.

그동안 著書도 많이 내놓으셨는데 요즘은…

□ 姜 네, 意匠論이란것을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원칙·원리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形体에 대한 공통언어를 만들어볼까해서… 또 내년이면 정년이고, 뭔가 하나를 남긴다는 뜻에서입니다. 造形意匠論이라고해서…

벌써 정년이라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후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 그것이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洪 감사합니다.〈※〉